나지완 엔트리 말소…KIA 4강 싸움 '비상'

옆구리 통증 호소
"중요한 때 자리비워 죄송"
이범호 4번 타자 나서

'호랑이 군단'의 4강 싸움에 악재가 찾아왔다. 4번 타자 나지완이 옆구리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지완은 지난 3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두 타석을 소화한 뒤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타 윤정우와 교체됐다.

김기태 감독은 4일 "(나지완이) 대타 자원으로 대기한다"고 밝혔지만 4일 롯데전에 이어 6일 SK전에서도 나지완은 벤치만 지켰다.

결국 코칭스태프는 막판 스퍼트를 기대하면서 나지완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한 경기 한 경기 피 말리는 접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나지완의 부재는 아쉽다. 올 시즌 KIA는 3번 김주찬을 필두로 해 4번 나지완, 5번 이범호의 막강 클린업 트리오를 가동해왔다.

김주찬이 왼쪽 견갑골 미세 골절로 잠시 자리를 비우기는 했지만 파워와 매서움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신의 공격 지표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나지완도 놀라운 출루율 행진 속에 자신의 역대 홈런 최고 기록을 23개에서 25개까지 경신하면서 팀 타선에 무게를 더했다. 타점도 87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첫 100타점에 근접했다.

이범호도 7일 경기 전까지 27홈런 91타점의 고공행진을 하면서 나지완과 동반 '30홈런-100타점'을 노리고 있던 만큼 꾸준하게 역할을 해줬던 4번 타자의 부재가 아쉽다.

상대 입장에서도 한방있는 나지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만큼 심리적인 전력 손실도 불가피하다.

나지완 본인의 아쉬움도 크다.

나지완은 "중요한 상황에서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죄송하다. 개인적으로도 꼭 100타점을 채워서 팀에 기여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안좋다. 몸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4번 자리는 나지완을 대신해 이범호가 책임지게 된다. 이범호는 나지완이 옆구리 통증으로 결장했던 지난 4일 롯데전에서 4번 자리에 서서 3번 김주찬과 승리를 합작했었다. 6일에도 4번 자리에 섰던 이범호는 지난 시즌에도 나지완의 부진 속에서 4번에서 105타석을 소화했었다. 나지완이 말소된 6일에도 이범호가 4번 타자로 나섰다.

이날 KIA는 SK와의 경기를 위해 안치홍(2루수)과 김호령(중견수)으로 테이블세터를 구성했고, 김주찬(지명타자)-이범호(3루수)-필(1루수)에게 클린업트리오 역할을 맡겼다. 6번 김주형(우익수)을 필두로 김다원(좌익수)-이홍구(포수) 등 파워있는 자원들을 하위 타순에 배치한 KIA는 9번에는 박찬호(유격수)를 스타팅 멤버로 내세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0일부터 잔여경기…10월 8일 한화와 최종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7일 우천으로 취소된 55경기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우천 순연된 경기는 9월 20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된다. 우천 등으로 추가로 취소 경기가 발생하면 예비일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비일이 없으면 '다음날 더블헤더-동일 대진의 둘째 날 더블헤더-동일 대진 첫 경기 더블 헤더순'으로 경기를 치른다.

단 한 팀의 경기는 최대 7연전까지 가능하고 이틀 연속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추가 우천 취소로 이해 일정 내 잔여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관계가 없는 경기는 포스트시즌 이동일에도 치를 수 있다. 또 정규시즌 4·5위 및 4·5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팀 경기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이 이동일에 치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더블헤더 첫 번째 경기 개시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 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다.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 종료 20분 뒤에 시작한다. 더블헤더 첫 경기는 연장전 없이 9회까지 진행된다.

한편 KIA는 20·21일 넥센과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잔여경기 10경기를 소화한다. 23일 마산에서 NC와 승부를 하는 KIA는 25일에는 kt를 상대하기 위해 수원으로 간다. 27일에는 LG와의 홈경기에 이어 30일 대구에서 삼성을 만난다. 10월 1·2일 kt와의 홈경기에 이어 10월 6일에도 안방에서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10월 8일에는 대전에서 한화와 2016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

Tigers 잔여경기 일정

날짜		상대팀	장소
9월	20~21일	넥센	광주
	23일	NC	마산
	25일	kt	수원
	27일	LG	광주
	30일	삼성	대구
10월	1~2일	kt	광주
	6일	삼성	광주
	8일	한화	대전

KIA-법무부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

내일 캠피언스필드

KIA 타이거즈가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법무부와 함께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3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법무부와 맺은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KIA 허영택 단장을 비롯한 오세인 광주 고검장, 김회재 광주지검장,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함께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법사랑 서포터즈(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70여 명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KIA 사인볼을 증정한다.

또 배우 이해인 씨가 시구자로 나서 '배려, 클린스포츠'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고 공을 던진다. 이 씨는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해 등장해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KIA 선수단 역시 '배려는 마음의 법'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 깨끗한 승부와 배려의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계획이다.

앞으로도 KIA는 법무부와 함께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 비리예방 교육과 각종 준법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멀티홈런 화끈한 복귀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4회말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공을 바라보고 있다. 어깨 부상을 털고 복귀한 강정호는 이날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15홈런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오승환 돌직구 받아쳐 홈런

빅리그 세번째 맞대결서 시즌 16호포…오승환은 16세이브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홈런을 뽑아냈다.

강정호는 7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MLB)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을 기록하고 타율을 0.249로 끌어올렸다.

강정호는 시즌 15·16호 홈런을 이날 하루에 기록하며 2년 연속 15홈런을 넘겼다.

2회말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의 홈런포는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터졌다.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루크 위버와 만난 강정호는 4구 체인지업을 때려 왼쪽 담을 훌쩍 넘겼다. 강정호는 2-5로 추격하는 귀중한 솔로포로 시즌 15홈런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강정호는 126경기에서 홈런 15개를 기록했고, 올해는 79경기 만에 달성했다.

강정호는 5회말 역전에 힘을 보탰다. 피츠버그가 2-5로 끌려가던 5회말 상대 실책과 안타로 1사 1·3루 기회를 잡았다. 그레고리 폴랑코의 우익수 앞 안타로 3-5로 추격한 뒤 강정호가 맷 보우먼의 높은 공을 가볍게 밀어쳐 중견수 앞 적시타를 날렸다. 강정호의 안타로 피츠버그는 4-5까지 따라갔고, 1사 1·2루 기회를 이어갔다. 이후 1루수 실책으로 피츠버그는 1사 만루 역전 기회를 잡았고, 조디 머서의 좌익수 쪽 2루타로 2루에 있던 강정호가 홈을 밟아 6-5로 역전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쪽은 세인트루이스다. 세인트루이스는 한 점 차로 끌려가던 9회초 2사 후 대타 맷 카펜터가 피츠버그 마무리 토니 왓슨을 상대로 6-6,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홈런포를 터트렸다. 기세가 오른 세인트루이스는 랜달 그리척의 투런포, 자니 페랄타의 솔로포 등으로 9-6으로 역전했다. 세인트루이스의 역전극을 마무리할 주인공은 오승환이었다.

오승환은 9회말 등판,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16세이브를 올렸다.

첫 타자 앤드루 매커천을 시속 152㎞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한 오승환은 폴랑코는 2루수 앞 땅볼로 요리했다. 오승환의 마지막 상대는 강정호였다.

앞서 두 번 상대해 모두 외야 뜬공으로 물러났던 강정호가 이번에는 승리했다.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오승환의 시속 154㎞ 직구를 때려 가운데 담을 넘겼다. 시즌 16호 홈런이자 올 시즌 두 번째 멀티 홈런 경기다.

오승환은 강정호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애덤 프레이저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팀의 9-7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굿바이! 박세리

인천서 LPGA 공식 은퇴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한국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은퇴 무대에 오른다.

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조직위원회는 "박세리가 10월 13일 인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에서 열리는 대회에 선수로 출전, 필드에서 팬들에게 은퇴 인사를 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기도 한 박세리는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이 대회에서 한국 팬에게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고 선수 생활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세리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US여자오픈 출전을 마지막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세리는 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5승을 포함, 25승을 올렸다.

/연합뉴스

리우패럴림픽 오늘 개막

다시 한 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밤하늘에 성화가 치솟는다.

장애인 체육을 넘어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15회 리우패럴림픽이 8일 새벽 6시(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남미에서 열리는 최초의 패럴림픽으로 160개국에서 4461명(남자 2739명, 여자 1722명·7일 현재)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중국이 307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어 브라질(286명), 미국(278명)이 뒤를 따랐다. 한국은 11개 종목에서 선수 81명과 임원 58명 등 총 1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한국은 총 81명의 선수가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들은 리우올림픽 선수단이 입은 단복과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개회식에 나선다. 개회식 기수는 남자부 주장인 이하걸(휠체어 테니스)로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1개 이상,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회는 리우 올림픽처럼 난민 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시리아 태생 수영 선수 이브라힘 알 후세인은 미국 망명신청자인 이란 출신 남자 원반던지기 선수 사라드 나자푸르와 패럴림픽 독립선수팀(IPA)으로 경기에 임한다.

두 선수는 국기 대신 패럴림픽 기를 들고 개회식에 나선다.

개막식에서 불타오를 성화는 7일 리우 시에 도착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희점 위원장은 7일 밤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설 계획이다. 성화 점화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